

자외선 차단제 바르세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6월 3일 (음 5월 8일)

광주	18~30℃
목포	18~28℃
여수	18~23℃
완주	16~28℃
구례	17~31℃
해장고	15~30℃
장흥	15~30℃
함평	16~27℃
순창	15~30℃
영광	17~29℃
진안	18~30℃
전남	18~30℃
전북	17~30℃
영남	18~30℃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0.5~1.0m

서해남부 먼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먼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2.0~3.0m

목포 밀물 06:56 썰물 12:49
여수 밀물 01:36 썰물 08:06

기상인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4(일)	5(월)	6(화)	7(수)	8(목)	9(금)
날씨						
최저/최고	18/29	17/27	18/26	16/28	17/26	19/27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장마

이달 중순까지 낮 기온이 오르면서 전형적인 여름 날씨를 보인 뒤 중순 후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달 초에는 장마전선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흐리고 굶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이 2일 발표한 '7개월 예보'(6·11~7·10)에 따르면 6월 중순까지 남서풍의 유입으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등 반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된다.

장마는 7월 중순까지 한달 가량 이어지는 가운데 7월 초순에는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6월 중순 후반부터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으며, 지역에 따라 1~2차례 집중호우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비브리오 패혈증균 2건 서해안에서 올 첫 검출

서해안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도내 서해안의 바닷물과 어패류, 갯벌 등 241건의 가검물을 검사한 결과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 2건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주로 해수온도가 높은 7~8월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는 경우 또는 군에 오염된 해수나 갯벌에서 피부 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세균성 질환이다. 1~2일의 잠복기를 거쳐 오한, 발열, 구토,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망률이 40~50%로 매우 높다.

건강한 사람은 감염 가능성이 작지만 당뇨병이나 간질환 환자 등 저항력이 약한 병자나 허약 체질자는 급격히 어패류 생식을 삼가야 하며 피부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또 가급적 해안에서 낚시나 어패류 손질을 피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도 보건당국은 "비브리오패혈증은 감염시 사망률이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발생 시 10월까지 해안지역 상인에 대한 예방교육과 함께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열손가락 없는 광주 출신 산악인 김홍빈씨

'의지의 손'으로 히말라야 오른다

장애는 불편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려는 도전은 아름답다.
등반사고로 15년 전 양손을 잃은 광주지역 산악인 김홍빈(43·광주시 서구 풍암동)씨. 그는 등반 파트너 김미곤(35·광주시 북구 각화동)씨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63일간 파키스탄 가셔브롬1(GI·8천68m), 가셔브롬2(GII·8천35m) 2개봉 연속 등정에 나선다.



1일 (구)광주매일 강당에서 열린 '2006 한국 G.I, G.II 원정대' 발대식에서 김홍빈(왼쪽)씨와 김미곤씨(오른쪽)씨가 등반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가셔브롬은 파키스탄 히말라야 산맥의 봉우리. 히말라야 산맥에는 8천m이상 봉우리가 모두 14곳으로 GI, GII는 각각 랭킹 11위, 13위이다.

지난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맥킨리(6천194m)를 단독으로 오르다 동상으로 양손을 잃은 김씨에게 G.I, G.II 도전은 녹록치 않다. 양 손가락을 모두 절단해야했기 때문에 높은 암벽을 등반하는 것은 힘겨운 일일 터다.

김씨는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에는 별 어려움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손가락이 없는 그에게는 등반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도 어렵게만 느껴진다. 지퍼를 혼자서 잠그지 못하거나 신발끈을 혼자서 묶지 못하는 것이 단적인 예. 텐트를 칠 때, 취사를 해결할 때도 김씨 혼자서는 아무래도 무리다. 그만큼 김홍빈씨에게 동반 파트너인 김미곤씨의 존재는 중요하다.

김씨의 이번 도전은 내년 아시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에 도전하기 위한 전초전인 셈이다. 7대륙 최고봉 등반을 목표로 하는 김씨는 이미 유럽 엘브루스(5천642m), 아프리카 킬리만자로(5천895m), 남미

15년전 맥킨리 오르다 양손 잃어 가셔브롬 2개봉 연속등정 나서 내년엔 7대륙 최고봉 등반기로

의 아콩가구아(6천962m), 북미 맥킨리를 등정, 이번 기회로 에베레스트 등정을 대비해 서로의 호흡을 맞춰볼 생각이다.

김홍빈씨와 동행하는 김미곤씨는 광주학생산악연맹을 통해 만난 절친한 선후배 사이로 10여년간 우정을 쌓아왔다. 김미곤씨는 "서로간 호흡은 곧 믿음"이라며 "홍빈이 형이 행동하는 것만 봐도 어디가

가려운지 알 정도"라고 신뢰를 표시했다.

이번 등반도 김홍빈씨의 제안에 김미곤씨가 흔쾌히 승낙해서 이루어진 것. 김미곤씨는 "많은 경험이 있는 홍빈이 형은 '머리, 저는 '몸'이라며 "우리는 곧 하나"라고 말했다.

등반사고로 양손을 잃게돼 산이 싫기도 하겠지만 김씨는 그렇지 않다. 김씨는 "산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다친 것일 뿐"이라며 "산이 원망스럽기는커녕 실의에 빠져있을 때 산을 타며 자신감과 삶의 의지를 불태우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 안에 남극의 빈센트스 등 남미 7대륙 최고봉 등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김씨는 "일반인들도 하기 힘든 일을 함으로써 장애우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활짝 웃어보였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유격체조 '힘들다, 힘들어!'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1학년 65명이 2일 육군 31사단 연병장에서 유격체조를 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 1일 신병교육대에 입소. 무박 2일동안 체스훈련·유격체조·각개전투 등 병영 체험을 했다.

큰 길 가로막는 음주단속 없기로 경찰청, 선별 단속기로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로(大路)를 가로막는 방식의 단속을 지양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대로를 모두 가로막는 방식의 음주단속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지양토록 각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신 신호대기 중이거나 이면 대로를 지나는 차량 등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영광군 품질 보증 '굴비 특품사업단' 회원들

중국산 조기 영광굴비로 가공 판매

목포해경, 6명 입건 조사

중국산 조기를 영광 굴비로 가공해 백화점 등에 유통시킨 영광지역 굴비 제조·판매업자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자들은 영광군이 지원하고 품질을 보증한(2004년) '영광굴비특품사업단' 소속 회원인 것으로 밝혀져 영광굴비 명성과 신뢰도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광역수사팀은 2일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D굴비 대표 조모(여·62), S수산 대표 나모(40)씨 등 영광읍과 법성포 굴비 제조·판매업자 6명을 입건, 조중 조사했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 등은 부산 수산물 수입상으로부터 중국산 조기 2천여 상자를 구입, 염장건조 처리 후 국내산으로 표시된 굴비상자에 재포장하고 지역 특산물인 '영광굴비'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해경은 이들이 지난해 추석 때부터 8

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또 모 굴비 제조업체가 지난 2004년 추석 전에 중국산 조기 1만2천여 상자(시가 3억원)를 구입한 것을 확인, 이 조식들이 국내산 굴비로 가공·판매됐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 업자는 값이 싼 중국산 조기를 영광산 굴비로 가공해 명절 선물용으로 백화점과 대형 마트 및 전화 주문하는 고객이나 관광객들에게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중국산 조기의 거래 가격은 9kg 1박스(200마리)에 1만원 수준이나, 국내산은 10만원대를 넘는다.

지난 93년 설립된 '영광굴비특품사업단' 소속 회원사는 당초 80곳이었으나 현재 213개 업체가 가입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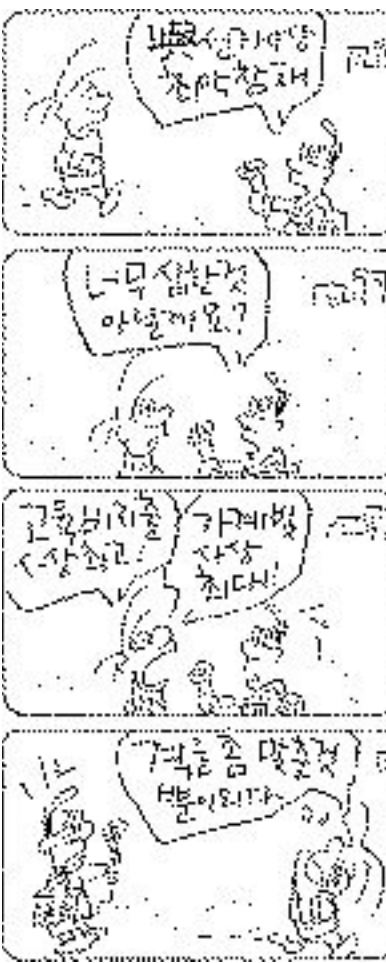
한편 영광지역에서 판매된 굴비는 2004년 기준 1만7천여, 2천500억원에 달한다. 영광 굴비 생산량은 ▲지난 2000년 8천(1천억원) ▲2001년 1만

▲영광굴비는 굴비 머리 부위에 '다이아몬드' 형태가 있다. 법성포의 특수한 자연환경, 지리적 기상요인과 서해에서 불어오는 하늬바람이 월등하고 1년 이상 간수가 빠진 천일염으로 염장해 제조한다. 굴비 두름의 노란색 끈 맺음은 영광 법성포 굴비만 사용해 왔으나, 최근엔 부산·제주·담양·추자도 등 모든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법성포 굴비는 마지막 끈 맺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업자들끼리 가격을 표시한다.

(1천800억원) ▲2002년 1만2천(2천억원) ▲2003년 1만7천(2천500억원) 등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목포=이승배기자 lsb@kwangju.co.kr /영광=조익상기자 ischo@kwangju.co.kr

나원침 (6845) 김홍두



'도롱뇽 소송' 천성산 구간 착공금지 가처분 기각

경부고속철 2010년 완공 가능

'도롱뇽 소송'으로 알려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원효터널)의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재항고 사건이 최고법원에서 기각됐다.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미소명 환경문제가 국제사업의 발목을 잡아서 안된다는 판단을 깔고 있는 이번 결정으로 천성산 13.2km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완공이 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동물 도롱뇽과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 천성산 내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변화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에 의하더라도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질적 특성이 설계 및 공법에 반영된 만큼 현재로서는 터널공사로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신청인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그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후손에게 이를 물려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영화배우 하지원씨 '주조작' 무혐의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스펙트럼 DVD'의 주조작 혐의로 수사의뢰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던 영화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시진)씨가 2일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법 금융조사부는 이날 "하지원씨가 스펙트럼 DVD의 주조작 피고자였던 혐의로 영구적으로 영구적 참여를 거치지 않았고, 전 스펙트럼 DVD 대표 박모씨 등 2명을 주주의 대량 보유 보고의무 위반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등 혐의로 약식기소.

'골리앗' 누른 '다윗' 휴대폰 자판 '천지인'분쟁 개인이 삼성전자에 승소

일명 '천지인' (·, -, 1) 분쟁으로 알려진 휴대폰 자판의 한글 입력장치 특허권 인정 항소심에서 개인 특허권자가 삼성전자를 눌렀다. 이 소송에서 조씨가 최종 승리할 경우 조씨가 받게 될 특허 사용료는 2002년까지 만들어진 삼성전자 휴대폰을 대상으로 계산해 900억원(휴대전화 3천만대×1대당 사용료 3천원)이나 된다.

특허법원 특허3부(문용호 부장판사)는 개인 발명자 조판(36)씨가 '자음·모음처리 및 조합 방식이 다르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6월 조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해 사실상 조씨가 완패했다고 여겼지만 이번 판결로 소송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연합뉴스